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Wednesday 4 May 2016 (afternoon)

Mercredi 4 mai 2016 (après-midi)

Miércoles 4 de mayo de 2016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여름휴가 녹색여행 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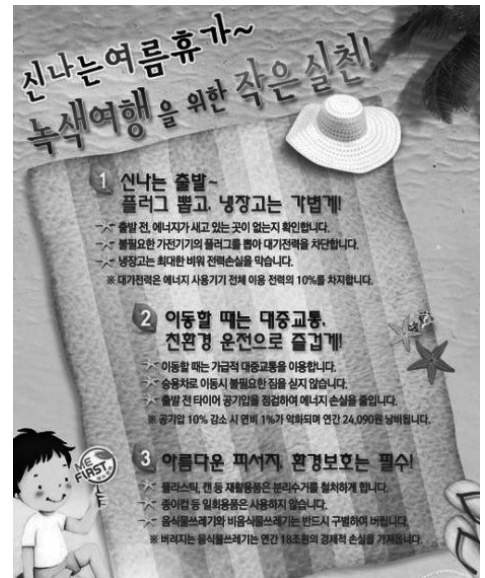
- ① **녹색여행** - 녹색여행은 휴가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이동하고, 여행지와 숙박업소에서 휴식을 즐기기까지의 전 단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착한 여행을 말합니다.
- ② **녹색여행 만들기 캠페인이 왜 필요한가?** - 여름휴가철에는 인구 이동량과 에너지 소비가 집중됨에 따라 전국의 유명 산과 계곡, 해수욕장, 고속도로, 휴게소는 피서객이 버리고 간 일회용품, 음식물 쓰레기로 오염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한 해 수거되는 쓰레기양의 3분의 1이 여름휴가철 한 달 동안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녹색여행을 실천하면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줄일 수 있고,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악취 등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정화에 소요되는 인력, 예산 등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 ③ **신나는 여름휴가 ~
녹색여행을 위한 작은 실천!**

- ④ **1. 신나는 출발 ~
플러그 뽑고, 냉장고는 가볍게!**
 - 출발 전, 에너지가 새고 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불필요한 가전기기의 플러그를 뽑아 대기 전력을 차단합니다.
 - 냉장고는 최대한 비워 전력 손실을 막습니다: 대기 전력은 에너지 사용기기 전체 이용 전력의 10% 를 차지합니다.

- ⑤ **2. 이동할 때는 대중교통, 친환경 운전으로 즐겁게!**
 - 이동할 때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승용차로 이동 시 불필요한 짐을 신지 않습니다.
 - 출발 전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여 에너지 손실을 줄입니다: 공기압 10% 감소 시 연비 1% 가 악화되며 연간 24,090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 ⑥ **3. 아름다운 피서지, 환경보호는 필수!**
 - 플라스틱, 캔 등 재활용품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 종이컵 등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와 비음식물 쓰레기는 반드시 따로 버립니다: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18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옵니다.



본문 B

진정한 봉사의 의미

5 천안박물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입구에서부터 안내를 해 주십니다. 처음에 박물관에 갔을 때는 그날만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 곳에 갔을 때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습니다. 여쭙 보니, 그분들께서는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일흔에서, 여든이 넘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었고, 또 이분들이 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시는지 궁금증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질문: [- X -]

10 대답: 주로 안내 봉사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관람하는 방향, 체험 시설에서 체험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문: [- 15 -]

15 대답: 나의 안내와 도움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이 결국 나한테 다시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느껴요.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지만 저도 배우는 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데 봉사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질문: [- 16 -]

20 대답: 나이에 대한 편견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 모를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나이”만을 가지고 노인을 무시하는 것에 있어 꼭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인의 봉사활동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반을 닦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있기에 미래에 지금의 젊은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봉사활동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도

25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 17 -]

30 대답: 주말마다 학생들도 박물관으로 봉사하러 오는데, 계속 휴대폰만 보거나,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봉사를 시간 보내기로만 여기는 학생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봉사가 어떠한 것인지부터 생각하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대신 나에게 돌아올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35 할머니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많이 반성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도 봉사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항상 봉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것입니다.

강지윤, 교육부 블로그에서 각색됨 (2015)

본문 C

갈수록 짧아지는 인터넷 용어

- ① 젊은 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줄임 말은 SNS*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용 연령층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선 온라인 줄임 말에 익숙하지 않으면 “인터넷 왕따”로까지 몰릴 지경이다.
- ② 모든 것이 빨라지는 시대에 경제성 측면에서 말이 짧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내일 보자를 “낼 보자”, 베스트프렌드를 “베프”로 줄여 말하는 것 등은 오프라인에서도 일상적 어법이다.
- ③ 하지만 40, 50대에게는 너무 생소한 말들도 넘쳐난다. 언젠가 한 TV 프로에서 “지대”라는 단어의 뜻을 50대에게 물었다. 이 말은 “제대로”라는 말의 변형 줄임말로 엄청난, 훌륭한, 무척 등의 의미로 쓰인다. 50대가 대답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 ④ 중고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줄임 말은 넘쳐난다. 시간이 맞는 친구들과리 밥을 먹으며 공부하는 “밥터디 (밥+스터디)”, “복붙 (복사해서 붙여넣기)” 등은 대학가에서 유행하는 줄임 말이다.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도 줄임 말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사들의 제목에 줄임 말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강부자 (강남에 사는 부동산 부자)”, “국조 (국정조사)” 등은 신문 헤드라인에 자주 등장한 줄임 형 단어들이다.
- ⑤ 온라인에서 줄임 말이 늘어나는 것은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핵심 내용 전달로 [- X -] 을 빨리 하려는 목적이 크다. [- 28 -] “빠름”만이 온라인 줄임 글의 목적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온라인 줄임 말을 양산하는 것은 청소년 [- 29 -] 이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시기라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차별화된 뭔가를 원한다. [- 30 -] 청소년은 어른 세대와 차별되는 용어를 쓰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데 온라인이 이런 [- 31 -] 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끼리끼리 쓰는 언어”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줄임 말이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 ⑥ 온라인 줄임 말에 대해 찬반이 갈린다. 옹호론자들은 언어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줄임 말은 효율적인 소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언어는 결국 서로의 약속인 만큼 그들이 정한 줄임 말로 원활히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대론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 온라인 말 줄임은 세대간의 소통을 “불통”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나친 말 줄임으로 올바른 언어 사용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인터넷 용어를 남발하면서 표준말 표기가 서투른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한다.



신동렬, 한국경제에서 각색됨 (2013)

* SNS 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줄임말

본문 D

청소년 동아리, 여기 다 모였다!

- 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많은 학교의 동아리들이 참가하여 전시, 체험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② **실내 스포츠, 까름**
“까름”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까름이란 남동아시아의 스포츠로서 가로세로 90cm의 까름판 위에서 손가락으로 스트라이커를 튕겨 까름멘과 퀴를 네 모서리 구멍에 집어넣는 실내 스포츠입니다. 오늘 모인 까름 동아리는 4개의 중학교에서 18명의 학생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단원들은 오늘 까름 실력을 뽐낼 수 있었고 처음 온 관람객들도 참여하여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 ③ **우리가 직접 만드는 영어 잡지**
ILE는 서현고등학교의 동아리입니다. 22년이 된 이 동아리는, 매년 영어 잡지를 발간하는데 선생님의 도움 없이 동아리 부원만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잡지는 매년 테마를 정하여 테마와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학교 행사, 영어 에세이, 문화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추가로 모아서 완성한다고 합니다.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사 쓰기, 퇴고, 편집의 과정을 거치며, 동아리 부원이 각각 일을 담당한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작성하고 영어 문법과 흐름을 잡아주고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등 디자인을 만드는 것을 동아리 부원들의 힘을 합쳐 한다니, 잡지를 향한 ILE 동아리의 대단한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 ④ **비누 만들기 체험을 통해 배우는 과학**
성의고등학교 S.E.P.T 동아리는 환경과 에너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이 동아리는 4월에 열린 대전 사이언스데이 행사에도 참여하는 등, 여러 행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활동은 비누만들기였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피부에 좋은 비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과학 원리를 설명하며 비누를 만들게 하는 활동은 정말 좋았습니다.
- ⑤ 이번 행사에서 정말 많고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를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스포츠, 영어, 과학 동아리뿐만 아니라 미술, 문화 체험, 안전 교육 동아리 등 새로운 동아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전국에는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동아리가 생겨서 청소년들의 특기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